

석사학위논문

중국사진의 예술적 표현력의 고찰

2016년

한성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사진전공

주결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남수

중국사진의 예술적 표현력의 고찰

Study on artistic expression about chinese photograph

2015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회 화 과

사 진 전 공

주 결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김남수

중국사진의 예술적 표현력의 고찰

위 논문을 미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회 화 과

사 진 전 공

주 결

주결의 미술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정 현 이 인

심 사 위 원 이 인 현 인

심 사 위 원 김 남 수 인

국 문 초 록

중국사진의 예술적 표현력의 고찰

한성대학교 대학원

회 화 과

사 진 전 공

주 결

컴퓨터기술의 끊임없는 발전에 따라 사진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관과 심미관에는 이미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그러한 변화가 사진촬영에도 반영되어 작품의 형식만 추구하고 작품에 깊이가 결여된 사진작품들이 대량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러한 변화의 추세는 현재진행형이다. 이러한 상황이 연출된 원인은 다방면적이다. 그 중 가장 주된 원인은 전통적인 촬영문화가 제대로 전승되지 못하고 중국의 사진작가들의 창의성이 결여되어 오랜 기간 사진작품이 질적으로 답보상태에 처해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중국의 사진작품의 표현력을 필자의 작품에 결부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섯 부분으로 나뉜다. 제1부분은 서론으로 논문의 연구목적, 연구방법 및 목전의 연구상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기술하면서 본 논문의 연구의 혁신적인 포인트를 지적하고 있다. 제2부분은 중국의 촬영역사에서 대표적인 작품에 반영된 예술성에 대하여 깊이 있는 분석을 가하면서 목전 중국의 촬영정신이 결여된 실상을 지적하고 있다. 제3부분은 예술성의 결여가 사진작품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면서 사상성과 예술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4부분은 필자의 작품과 결부하여 사진작품이 반드시 구비해야 할 요소들을 분석하고 있다. 제5부분은 논문의 연구성과를 종합하면서 중국의 사진작품의 발전에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본 논문의 연구성과가 중국의

촬영작가들의 가치관과 심미관 변화에 적극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주요어】 사진작품, 예술적 표현력, 가치관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의 목적	1
1.2 연구의 방법	1
1.3 연구의 구성 및 흐름	2
II. 중국의 사진작품에 대한 연구	4
2.1 중국의 사진에 대한 감상과 분석	5
2.2 중국의 사진의 예술성의 관계에 대한 분석	11
III. 사진작품의 필수 요소에 대한 분석-본인의 작품을 사례로	24
3.1 경전적인 사진작품의 필수 요소	24
3.2 본인의 작품의 내재적 요소에 대한 분석	31
IV. 결 론	34
참고문헌	35
ABSTRACT	36

그림 목 차

<그림 1> 두수현(杜修賢) 역사적인 악수 1972	5
<그림 2> 몽자(蒙紫) 티벳 어린이의 이발을 해주다 1959	6
<그림 3> 리효빈(李曉斌) 도하의 물을 산에 끌어 올리다 1958	8
<그림 4> 袁毅平 원이평 동방홍 1976	9
<그림 5> 이빈 李斌 사이클론이 휩쓴 후 1998	11
<그림 6> 여남(呂楠) 잊혀진 사람들 1993	13
<그림 7> 오가림(吳家林) 운남성의 시골사람들 1999	14
<그림 8> 장건기(張乾琦) “쇠사슬” 1999	15
<그림 9> 하반(何潘) 무제 1962	16
<그림 10> 해해룡(解海龍) ”큰 눈망울” 1994	17
<그림 11> 초전(肖全) “우리 세대 - 역지난” 2000	18
<그림 12> 원의충(阮義忠) ”사람과 땅” 1975	19
<그림 13> 왕문란(王文瀾) “자전거를 타던 나날들” 1992	20
<그림 14> 당사증(唐師曾) “모신우의 대학생시절” 1988	21
<그림 15> 여후민(呂厚民) “여산에 계신 모택동” 1972	22
<그림 16> 본인작품 “늙은 광부” 2015	25
<그림 17> 본인작품 “늙은 광부” 2015	26
<그림 18> 본인작품 ”늙은 광부” 2015	27
<그림 19> 본인작품 “늙은 광부” 2015	28
<그림 20> 본인작품 “늙은 광부” 2015	29
<그림 21> 본인작품 “늙은 광부” 2015	30
<그림 22> 본인작품 “늙은 광부” 2015	31
<그림 23> 본인작품 “늙은 광부” 2015	32
<그림 24> 본인작품 “늙은 광부” 2015	32
<그림 25> 본인작품 “늙은 광부” 2015	33

I. 서 론

1.1 연구의 목적

본논문의 연구대상은 중국 사진작품의 예술적 표현력인바, 우수한 사진작품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구비하며 이는 사진작품의 시대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의 직관적인 구현이기도 하다. 중국의 사회 및 경제의 고속발전은 전통적인 촬영의식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사진작가들은 촬영을 이용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작가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목적과 의도에 충실하여 사물을 촬영하고 있는바, 많은 사진작품들은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만 추구할 뿐 장원한 보존가치를 상실하고 있다. 우수한 사진작품은 반드시 역사의 평가를 받기 마련이며 여러 세대의 관중들의 날카로운 시선의 평가를 거쳐 경전적인 작품으로 남는다. 그러나 목전 중국의 촬영업계는 이미 이런 경전적인 사진작품을 내놓을 가능성마저 상실하고 있다.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하여 주로 촬영행위중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분석하면서 사진작가와 대중에 사상성과 예술성을 떠나면 사진작품은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며 사진작품의 깊은 사상성은 예술적 표현력에 의해서만 구현될 수 있으며 촬영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경전적인 사진작품에 대한 연구와 현재의 사진작품에 대한 연구를 결부하여야 한다는 이치를 설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고가 중국의 사진작가들의 작품활동과 대중들을 계발하여 사상성과 예술성이 구현된 작품들을 창작함으로써 보다 많은 우수한 작품들을 후세에 남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

1.2 연구 방법

본 논문의 연구는 주로 중국의 촬영역사과정에 배출된 경전적인 작품들에 대하여 감상하고 분석하면서 그 속에 내재된 사상적 의미와 예술적 표현력을 분석함으로써, 사진작품에서 구현된 중국인민의 시대정신을 구체화하고 중국의 목전의 사진작품의 질을 한층 제고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

필자는 관련자료를 찾아보고 목전의 촬영시장을 조사하는 과정에 촬영업계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발견하였으며 사진작가들이 이윤창출에 정신이 팔려 촬영 기술보다는 명예를 쫓는 현상을 많이 봐왔다. 이러한 현상들은 대중들로 하여금 촬영업계에 대하여 심각한 오해를 낳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상기의 문제점을 중국의 촬영사업의 발전추세에 결부하여 관련 문헌자료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중국 목전의 촬영업계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총정리하고 기존의 작품과 현재의 작품을 비교하고 필자 본인의 작품에 결부하여 사진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적 표현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3 연구의 구성 및 흐름

목전, 중국의 촬영이론연구는 주로 예술형식, 창작스타일 및 촬영기술 등 분야에 집중되면서 촬영의 사상성과 예술적 표현력에 대한 연구는 홀대 받고 있는 현실이다. 필자는 관련 문헌자료를 찾아보면서 중국의 사진작품들의 사상성과 예술적 표현력에 대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는바, 논문의 이론적 토대는 주로 하기의 작가들의 연구성과들이다.

왕국량(王國良)은 “촬영예술의 현대미학의미와 그 심층적인 해독”이라는 논문에서 하기와 같이 지적하고 있다. 고전미학의 현실에 대한 반영은 옛 사람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대를 구현하고 있는바, 옛 사람들의 낙천적인 정신세계는 현실이 내재한 아름다움을 믿고 있었다. 부정주의의 출현은 이러한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를 모순되게 만들었는바, 절망적인 반항정서가 사진작품에 반영되어 다양한 형식의 미학작품들이 배출되었다. 촬영예술은 표면적으로는 아름다운 사물, 추한 사물, 황당한 사물에 대한 표현인 것으로 보이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이 모종의 정신의 보존이며 미적인 것들이 사진작품에 새로운 방식으로 표출된 것이다.

조엽(趙燁)은 “중국당대 촬영관념의 흐름과 표현”이라는 논문에서 하기와 같이 지적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반예술적인 태도는 기존에 촬영예술을 옥죄고 있던 쇠사슬을 해제함으로 촬영이 전위예술의 지위를 가지게 하여 보다 많은 예술가들이 촬영을 통하여 사상관념을 표출하게 함으로써 촬영을 중

요한 예술로 승화시켰다. 예술가들은 보다 편리한 여건에서 보다 많은 기회와 시간을 이용하여 촬영에 대하여 구사하고 있으며 촬영의 본질은 간단한 셔터의 터치나 사진을 남기는 작업에 그치지 않는 일종의 예술행위로 승화되었다. 왕금야(王今野)는 “당대 촬영의 예술적 가치와 사회비판성”이라는 논문에서 하기와 같이 지적하고 있다. 촬영은 탄생초기의 사상적 의미의 전달로부터 점차 사실적 의미의 전달로 변화하고 있지만 그 어떤 예술형식이든 목적은 실제와 결부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작가의 사상적 감성과 갈라놓을 수 없다. 예술가는 사회현상에 대한 사색과 비판을 통하여 그 것을 작품에 구현하며 이러한 감성은 주관적이거나 객관적 영향을 받은 것이거나 모두 예술가의 작품을 통하여 사회상을 직관적으로 반영하게 되는바, 한 시대의 경전적인 작품은 그 시대의 사회상의 축소판이기도 하다. 촬영은 간단한 작업이 아니라 사회상을 기록할 역사적 사명을 지닌 엄숙한 예술행위로서 촬영의 가치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더욱 중요한 지위를 갖게 된다.

종림잡(鍾林卡)은 “중국촬영예술의 민족화 과정¹⁾”이라는 문장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촬영의 주체성은 민족화 과정에서 반드시 견지되어야 하며 촬영이 현실생활을 반영하는 역할은 보다 뚜렷해지고 있다. 표현형식, 시각적 언어 등은 끊임없이 혁신되고 촬영이론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보강되어 촬영예술이 더욱 그 매력을 발산하게 함으로써 중국의 민족촬영예술이 진정으로 그 특색을 구비하여야 한다.

1) 鐘林卡. (2010). 『中國攝影藝術的民族化進程』, 江西社會科學, p227-230.

II. 중국의 사진작품에 대한연구

촬영의 탄생과 함께 촬영예술장르는 부단히 발전하고 변화하여 왔는바 인상과 사진, 다큐멘터리 사진 등 장르들은 대단한 창의력을 구비하였으며 이러한 경전적인 사진작품들은 사회의 발전과 진보에서 불가결의 정신적 자산으로 유전되고 있다. 서양의 촬영예술은 주로 미학적인 추구에서 끊임없이 고차원으로 진입하고 있고 중국의 부분적인 사진작품들에서도 이러한 서양의 촬영이념을 답습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의 사진작가들은 중국의 전통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특성과 서양의 촬영이념을 결부하면서 아직까지 중국특색이 짙은 촬영예술의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촬영역사도 비교적 길다고 할 수 있으며 특정의 시대에는 많은 경전적인 사진작품도 배출하였다.²⁾ 이러한 경전적인 사진작품들은 역사의 검증을 거쳐 현재의 촬영업계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부분적인 사진작품은 현재의 사진작가로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고차원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구비하고 있다. 이런 작품들의 사상성과 예술성의 표현기법은 각자 특색이 있고 사진작가 자신의 심미관과 생활에 대한 감수를 결부하여 풍부한 촬영기법으로 표현함으로, 대중들의 시야를 넓히고 만물을 새롭게 접촉할 기회를 제공한다³⁾. 사진작가는 개인의 경력과 생활환경에서 영감을 얻어 다수인이 눈길을 돌리지 않는 사회현상을 기록하고 사물과 인물을 예술장르로 소화하여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줄 알아야 한다. 아래에 필자는 중국의 일부 경전적인 사진작품을 감상 및 분석하면서 이러한 작품들이 내재한 사상성과 예술성에 대하여 논술하고 분석하기로 한다.

2) 李龍海. (2014). 『觀念攝影的形成與發展』. 吉林大學. p37

3) 黃 俊. (2013). 『文化內涵是攝影藝術的靈魂』. 神州. p29

2.1 중국의 사진작품에 대한 감상과 분석



<그림1> 두수현(杜修賢) 역사적인 악수 1972

“역사적인 악수”는 두수현(杜修賢)작가가 1972년 2월 21일에 미국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기간에 촬영한 것이다.

당시 미국대통령 닉슨의 중국방문은 전세계의 관심사였고 미국대통령에 대한 접대는 중국인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촬영 시 순간적인 장면을 포착하기 위하여 특별히 사진작가들에게 사다리사용을 허용하였으므로 상기의 사진은 두 분이 악수하는 지점과 20미터 떨어진 사다리에서 촬영할 수 있었다. 11시 즈음에 닉슨대통령의 전용기가 베이징에 도착 후, 중-미 양국의 지도자들의 대면할 시각이 곧 닥쳐오게 되었다. 해치가 열리고 닉슨이 계단을 타고 내리면서 주은래총리를 향해 손을 내민다. 주은래총리는 온화한 기분으로 닉슨대통령이 내민 손을 잡는다. 서로 손을 맞잡는 순간 사진작가는 셔터를 누른다. 이 사진은 주은래총리의 심열을 거쳐 최종적으로 발표되는데 역사적인 순간에 대한 기록으로 중차대한 의미를 가지게 되며 “가장 이채로운 역사적 순간”으로 평가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50년간 관건적인 순간 기록물”에

선발되어 중국의 촬영역사에 최고의 경전적 작품으로 남게 되었다.

주진화(周振華), 1935년에 하남성 휘현에서 출생하여 휘현문화관 관장을 역임. 부연구교수. 1968년부터 촬영을 시작하여 1960년대 하남성 휘현에서 황무지를 개간하여 밭을 만들고 산을 갈라 도로를 건설하는 등 휘현인민들이 자연과 싸우는 거창한 모습과 당시의 정치배경과 생활풍경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사진에 담은 사진작가이다. 작품 수백점이 전국구 내지 성급 미디어에 발표되었으며 대표작들이 전국의 농업분야, 수리분야, 교통분야, 임업분야, 민족분야의 사진전에서 입상하였다. 주진화는 책무상 어쩔 수없이 사진기를 떼게 되었지만 촬영기술연마에 게을리하지 않고 예술소양을 부지런히 닦아 점차 직업작가로 활동하게 되며 특수한 시대상을 진솔하게 렌즈에 담은 진귀한 작품들을 세상에 남겼다.



<그림2> 몽자(蒙紫) 티벳 어린이의 이발을 해주다 1959

“티벳어린이의 이발을 해주다”라는 작품은 몽자(蒙紫)라고 하는 사진작가가 1959년 5월에 촬영한 것이다.

하루는 작가가 도시 외곽에 주둔하여 있는 인민해방군 중대를 찾아갔는데 티벳 어린이들이 중대의 정원에서 뛰놀고 있었다. 서로 언어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티벳 어린이는 손짓 발짓을 해가며 열심히 분대장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분대장이 티벳 어린이들이 이발을 해달라고 한다는 말에서 영감을 얻은 작가는 이발장면을 사진에 담기로 작심하고 분대장과 의논하고 이발장소를 병영 뒤의 수림으로 정하였다. 티벳 어린이들은 수림으로 이발하러 간다는 말에 흥분하여 렌즈 앞에서 낯선 느낌이 전혀 없었다. 작가는 어린이마다 렌즈에 담아 촬영하여 티벳 어린이들은 난생 처음으로 렌즈속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마침 정오여서 태양광선이 너무 강렬하였다. 작가는 흰 천을 이용하여 반사처리를 함으로 사진의 예술적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작품의 주제를 보다 강렬하게 시사하기 위하여 작가는 울통불통한 지표면을 피하고 아래로부터 위로 쳐다보는 시각을 취하여 분대장이 티벳 어린이의 머리 카락을 자르는 장면을 사진에 담아냈다. 이 작품을 통하여 사진속의 사람들의 심리적인 측면이 잘 드러나고 있으며 티벳의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상이 사진 한장에 잘 담아내고 있다. 이 사진작품은 변모한 티벳지역의 사회상의 축소판으로 되기에 손색이 없다.

번덕수(樊德壽)는 국가 1급촬영가로 중국촬영가협회 이사, 중국화보협회부회장, 호북성 촬영가협회 주석, 호북성 신문촬영학회 부회장을 역임. 제6차 중국촬영어워즈 금상(조직상)을 수상하기도 함. 해당 금상은 중국촬영업계의 최고상임. 4,000여 점의 작품을 성급이상 미디어에 발표하고 150여 점의 작품을 성급이상 전시회에 출품하였는바, 그중 40여 점의 작품이 입상하였다. 번덕수의 초창기의 작품은 1960~70년대의 중국군의 군생활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군대와 인민의 협력관계를 훌륭히 조명하고 있다. 그 후, 군부대의 소재에 얽매이지 않고 서민들의 생활에 렌즈를 돌려 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그림3> 리효빈(李曉斌) 도하의 물을 산에 끌어 올리다 1958

감숙성은 가뭄이 많기로 유명한바, 한나라시기부터 중화인민공화국 건국까지 감숙성에는 2백여 차례의 대형 가뭄이 들었으며 특히 1929년도의 가뭄은 300만의 인명을 빼앗아갔다. 감숙성의 인민들은 조속히 가뭄에 대한 방지책을 취하여 빈곤에서 벗어나려 갈망하고 있었다. 1958년, 대약진운동이 한창 진행될 시기에 감숙성 인민정부는 고산준령에 운하를 건설한다는 지침을 제출하고 도하의 물을 산에 끌어올려 2000만 무(畝)의 농지를 관개하는 한편 운하로도 이용하고 발전소도 운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다. 이 계획은 감숙성 인민들의 지지를 얻어 10여 만 명의 농민들이 공사장에 투입되어 열악한 자연환경과 싸우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1958년 말, 사진작가 여수(茹遂)가 도하의 물을 산에 끌어 올리는 공사장에 갔다가 상기의 작품을 촬영하였다.⁴⁾ 도하(洮河) 양안에 높이 치솟은 수백 미터 높이의 절벽에서 농민들이 가장 원시적인 도구로 산중턱에 운하를 구축하고 있는 장면은 당시의 사회상을 가장

4) 黄 俊. (2013). 『文化內涵是攝影藝術的靈魂』. 神州. 27:212. p102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바, 사진작품에 비쳐진 인물은 많지 않지만 공사장에 흩날리는 황토가 배경이 되어 인간이 자연과 싸우는 장엄한 장면을 훌륭하게 연출하고 있다. 물론 해당 계획은 대약진운동시기라는 특정된 사회배경에서 착오적인 행정이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해당 공사 또한 실패로 끝났지만, 이 사진작품은 감숙성인민들이 자연과 맞서 싸우는 드높은 기세가 중국농민들의 열기를 대표한다는 점에서는 아직까지도 경전적인 사진작품으로 꼽히기에는 손색이 없다. 이 작품은 국제사진전에서 금상과 1등상을 여러 번 획득하면서 당시의 시대상을 가장 잘 반영한 대표작으로 인정받고 있다.

리효빈(李曉斌)은 1955년 6월에 북경에서 출생한 촬영가로 “4월 촬영학회” 창시자이기도 하다. 1980년대 이후의 중국의 개혁개방과 더불어 중국의 문화와 사상계의 활약상이 돋보였는데 중국의 사진작가들도 그 영향을 받아 촬영업계에는 커다란 변화가 발생한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사진작품에 서민들이 모델로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꾸밈이 없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서민생활이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사진작가들은 렌즈를 서민들에게 돌리고 사회생활의 구석구석을 탐색하기 시작하였으며 사진작가들은 생활에 대한 자신의 감수를 담아 사회 변혁기를 자발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한다. 리효빈은 이러한 배경에서 촬영업계에 뛰어들어 미디어의 충실한 촬영기자로 중국신문촬영의 선봉으로 활약한다.



<그림4> 袁毅平 동방홍 1976

어느 날 아침, 사진작가 원의평(袁毅平)은 라디오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동방홍” 악곡에서 힌트를 받았다. “일출”과 “천안문”은 연관성이 크지 않은 이미지인데 만약 “붉은 해가 천안문성루 위에서 서서히 떠오른다면 멋진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떠올라 상기 사진작품을 촬영하였다. 이렇게 탄생한 작품은 비유와 상징이라는 예술적인 언어로 촬영기법을 이용하여 문득 떠오른 영감을 사진으로 옮겨 “동방홍”이라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자를 노래하는 악곡을 화면으로 옮기는데 성공하였다. 당시 중국은 3년 자연재해로 극심한 곤란에 봉착한 시기였는데 사진은 중국이 곧 고난의 시대에서 아름다운 새시대의 아침을 맞이할 것이라는 희망을 준다. 사진작가 원의평은 “동방홍”악곡에서 영감을 얻어서부터 화면을 구사하고 현장을 답사하고 반복적으로 촬영하면서 해당 사진작품을 완성하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을 들였다고 한다. 가장 이상적인 아침노을을 촬영하기 위해서 기다린 시간이 무려 2년이었던 것이다. 사진작가는 촬영기법을 바꿔가면서 촬영했는데 아침노을이 너무 빨리 변화하여 집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침노을을 보고 천안문광장으로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면 노을이 벌써 변화하곤 하여 헛걸음을 몇번이나 하였는지 작가도 알지 못했다. 그렇게 2년을 기다려 바로 사진속에 담겨진 가장 아름다운 아침노을을 순간적으로 포착할 수 있었다고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초기에 역사사건을 기록하고 사회상과 시대상을 반영하고 인문가치를 높이 치켜세운 고품질의 우수한 사진작품들이 많이 배출되었는바, 이런 작품들은 모두 뚜렷한 시대적 특징과 우수한 예술적 품격을 갖췄다. 지금까지 유전되어 오는 경전적인 사진작품들을 감상하면서 필자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당시의 사진작가들은 렌즈를 인민들의 생활상, 사회상과 국가의 명운에 돌려 깊은 사상성을 내재한 작품을 촬영하였는바, 부동한 시대의 인문정신을 표출하고 있다. 비록 당시의 촬영여건은 아주 힘들었고 촬영자 채들도 낙후된 것들이었지만, 사진작품이 내재한 사상성과 예술적 표현력이 뒷받침되어 촬영의 질은 더없이 훌륭하였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사상성과 예술성은 사진작품의 아주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촬영기술의 초기부터 촬영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상성과 예술적 표현력은 사진작품의 질을 결정하는 관건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2 중국의 사진의 예술성의 관계에 대한 분석

사진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의 본질은 촬영의 형식과 내용, 표현방식과 소재의 관계로서, 사진작품의 질은 작품이 내재한 사상성과 예술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의 촬영역사든, 세계의 촬영역사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유전되는 사진작품은 모두 소재와 사상 및 예술성이 고도로 통일된 작품들이며 3자는 사진작품의 작품성을 평가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5)경전적인 사진작품들이 역사의 흐름속에서 퇴색하지 않고 유전되는 원인은 바로 이 3자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작품속에 녹아 있기 때문이다. 촬영은 일종의 예술로서 그냥 화면으로 기록하는 작업이 아니라 특정의 화면으로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화면이 내재한 깊은 의미로 사람들의 사고를 촉발시키는 예술행위이다. 기술적인 처리만을 거친 화면은 진정한 예술적 가치를 가질 수 없다. 사진작품은 렌즈에 담은 화면의 내용을 충분히 표출해야 할뿐만 아니라 작가의 감성과 실생활에서 얻은 영감을 직관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그러므로 촬영예술은 작가의 개인소양과 촬영기술의 구체적인 표현과정이기도 하다.



<그림 5> 이빈 사이클론이 휩쓸 후 1998

5) 鄧天佑. (2012). 『布列松新聞攝影思想研究』. 湘潭大學. p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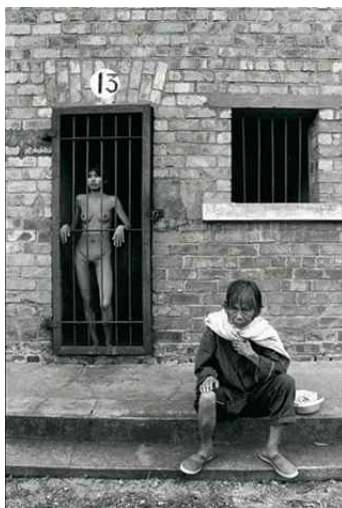
1998년 5월 2일 미얀마에 사이클론 나르기스가 지나가며 큰 피해를 남겼다. 2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4만 명 이상의 실종자가 발생하고 수백 만 명이 집을 잃었다. 작가는 이러한 상황을 사진에 잘 담아냈는데, 울고 있는 Hhaing The Yu라는 사나이와 그 뒤에 쓰러진 그의 집은 참담한 피해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한다. 촬영의 목적에는 인류가 지나온 역사적 순간을 담는 것도 포함되며 대표적인 사물이나 인물을 통하여 특정의 시기에 발생한 사건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박아 넣으므로 사람들에게 생명의 귀중함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준다. 상기의 작품은 비록 참담한 현실에 대한 기록이지만 이런 고난의 역사를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생활을 더욱 사랑하도록 호소한다. 이 작품에서 보듯이, 외국의 사진작가들도 자신의 작품에 사성성과 예술성을 훌륭히 녹여낸다. 사상성과 예술성은 우수한 사진작품의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다.

사진작품의 예술성은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촬영기법을 포함한 여러가지 요소들의 융합이기도 하다⁶⁾. 여러가지 요소의 융합되어 최종적으로 사진작품의 예술성이 되어 그 작품성이 인정을 받게 된다. 사진작품의 예술적인 처리과정에 구도, 빛의 사용, 주체, 배경 등의 관계를 세밀하게 연구하여야 하는바, 이는 사진작품의 예술적 표현력을 높이는 관건이다. 동시에 작품의 예술성은 보는 사람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작가가 자신의 작품은 보통의 사람들은 쉽게 해독하지 못할 것이라는 오만함은 결국 자신의 실패작에 대한 자아위안일 따름이다. 경전적인 사진작품이 오래도록 사람들의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 사랑을 받기 때문이지 어떤 권위자가 훌륭한 작품이라고 해서 경전적인 사진작품이 되는 것이 아니다. 사진작품의 내용은 작품이 내재한 사상성의 표출이며 작품의 형식은 예술성의 구체적인 표현방법이다. 작품의 사상성은 예술성에 의해 구현되고 예술성은 사상성의 존재기반이 된다. 작품을 놓고 보면 사상성과 예술성은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 작품성을 형성하여야 하며 사상성과 예술성 그 어느 쪽으로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감과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정도가 현격히 떨어지게 된다. 작가는 작품활동 시, 주관적으로 작품의 사

6) 王柄凯. (2013). 『浅谈摄影的艺术性』. 才智. 11:241. p230

상성과 예술성을 완벽히 결부하는 동시에 사회적인 심미요구에 부합하도록 하여 사회적인 공감대를 가지는 가치 있는 작품을 창작함으로써 사람들의 깊은 사색을 유발하여야 한다.

로광(盧廣)은 절강성 영강시 출신으로 중국촬영가협회 회원, 금화시 촬영가협회 부주석을 역임. 1980년부터 아마추어 촬영사로 시작하여 1988년에 “중국촬영가협회 덕과 기술이 겸비한 우수회원”으로 선출되기도 함. 중국 중앙티비방송국 촬영프로그램 “순간에 그려진 세계”에서 주최한 중국촬영업계 2002년 “십대뉴스인물”에 선출됨. 그의 대표작 “에이즈집중촌”은 2003년에 평요국제사진전 “중국당대촬영가어워즈” 은상을 수상하였고 동시에 하색금상을 수상하였다. 2005년부터 로광은 중국전역을 전전하면서 “중국의 오염”이라는 주제로 작품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중국의 서부로부터 동해안까지, 황하유역으로부터 양자강유역까지 그의 환경오염을 주제로 한 작품활동은 중국 현재의 환경오염상태를 진실되게 반영하고 있다⁷⁾. 그는 사회문제를 깊이 있게 반영하는 다큐멘터리 촬영에 주력하고 있으며 작품들은 사회적인 핫 이슈들을 잘 다룬다. 서부지역 대개발, 마약금지캠퍼스, 소형탄광의 안전사고, 경향대운하, 삼협댐, 청장철도건설 등은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단골소재들이다.



<그림 6> 여남(呂楠) 잊혀진 사람들 — 중국정신 병환자들의 생존실태1993

7) 馮笑男. (2013). 『攝影藝術創作中的情感表達』. 藝術研究. p98

“나는 정신병원을 촬영하고나서야 정신병원우들이 ‘병원밖이야말로 정신병원이고 정신병원은 오히려 교회당이나 절, 수도원과 같이 조용하고 정숙하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 여남(呂楠)”⁸⁾ 잊혀진 사람들 — 중국정신병원자들의 생존실태”에서

“바람의 나그네”라 불리는 사진작가 여남(呂楠)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15년을 포교자의 신분으로 중국의 민족생활실태를 기록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초창기의 대표작 “무명의 산을 1미터 더 높이기 위하여”는 중국 당대예술사의 경전적인 사진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여남(呂楠)은 미국의 “여남(呂楠)”잡지에 특별 소개된 유일한 중국 사진작가이다. 여남의 창작과정은 마치 고행승과 같아 생활, 근무, 학습에서 모두 독특한 정감들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좋은 작품은 침묵속에서 완성된다”는 도리를 굳게 믿으면서 1989년부터 15년을 들여 “3부작” - “잊혀진 사람들 - 중국정신병원자들의 생존실태”, “과정적인 것 - 중국카톨릭”, “사계절 - 티벳농민들의 일상생활”을 완성하였다. 상기의 3부작은 중국인의 정신적인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작가 자신의 인류의 위대한 정신적인 자산의 귀환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다. 3부작이 세상에 나오자 여남은 “중국의 가장 전기적 색채를 띤 사진작가”, “당대 중국의 가장 무게 있는 사진작가중의 한 사람”으로 존중을 받고 있다.



<그림 7> 오가림(吳家林) 운남성의 시골사람들 1999

8)李愛民. (2000), 『攝影的美學思想』. 新疆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p24

“많은 작가들이 운남성의 소수민족을 촬영하고 있지만, 그들은 상투적으로 모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민족복장을 입히고 렌즈를 향해 미소를 짓게 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생활이 아니며 독자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결여된 작품들이다. 나도 비슷한 사진들을 찍었는데 모두 외국편집자들에 의해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사진기는 역사를 반영하는 눈과 같아서 렌즈를 마주하여 연기하거나 렌즈를 억지로 선택된 피사체에만 맞춘다면 사진은 그 가치가 소실된다.”

오가림은 운남성 현지에서 성장한 사진작가로 현재는 “국제적인 성망을 가진 촬영대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의 작품은 강렬한 개성을 지니고 있는바, 지역적인 특색을 작품에 고스란히 담아 “중국화”의 극단적인 풍경들을 반영하고 있어 역사적인 감각과 문화적인 감각이 뛰어나다. 오가림은 피사체의 자연적인 모습에 눈길을 돌려 생명 자체에 대한 경외감을 중요시하는바, 사회적 지위로 인한 사람들 사이의 차별보다는 산과 산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감을 아주 자연스럽게 담아낸다. 초현실주의는 오가림의 사진작품의 주요한 풍격으로서 극적인 모습을 잘 담아내고 있다. 오가림의 사진작품의 가장 독특한 점은 바로 자신의 성격적 특성과 작품의 개성이 일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성으로 독특한 민족적인 기질을 반영하는 사진작가들은 극히 적다. 오가림의 대표작들로는 “운남성의 시골사람들”시리즈와 “일상사를 이야기하다”라는 작품이다. 2006년, 오가림의 작품은 세계촬영대가시리즈작품에 수록되었으며 “오가림 - 중국의 변방”은 프랑스에서 출판되었다.



<그림 8> 장건기(張乾琦) “최사슬” 1999

“촬영은 일종의 본능이지만 나는 현재 본능을 따르기 보다는 기율을 지킨다. 나는 화면마다 무게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마치 태극권에서 매차례 들숨과 날숨이 모두 역할이 있는 것과 같다. ” - 장건기

중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사진작가 장건기는 Magnum Photos사 촬영가중 유일한 중국계다. 그는 뉴욕 차이나타운의 불법이민자들의 생활을 반영한 사진 작품으로 NPPA (National Press Photographers Association)의 “년도매거진 촬영가”상을 받았다. 미국에 이민 간 장건기는 중국이민자들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이민자들의 생활을 직접 체험하면서 이민자들을 요해하였다. 그로부터 장건기의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다. 어려서 집을 떠나 홀로 생활하다가 미국으로 이민까지 떠난 장건기는 인간관계와 이별에 대한 사색을 멈춘 적이 없었고 특히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가졌었다. 이 또한 향후 장건기 사진작품의 주제로 오롯이 자리매김을 하였다. 장건기의 대표작으로는 사진작품집 “쇠사슬”, “조선을 뛰쳐나오다” 등이 있다.



<그림 9> 하반(何潘) 무제 1962

하반을 사진작가로 기억하는 사람은 현재 별로 없다. 모두들 그를 영화감독으로만 알고 있으며 그가 감독을 맡았던 선정적인 영화 “미” “춘만단맥” 등은 한때 홍콩영화계를 들썩이기도 했었다. 사실상 하반은 잊혀진 사진작가이다. 영화감독을 하면서 Rollei사진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한다. 주변의 사람과 일을 찍어대곤 하였는데 하늘, 바다, 사람, 거리 등 일상의 모든 것들이 그의 작품의 소재였다. 하반은 특히 빛과 자연경관이 교차하여 연출하는 경이로운 모습을 잘 포착했는데 국제적인 촬영상 280개를 수상한 대단한 촬영가였다.



<그림 10> 해해룡(解海龍) “큰 눈망울”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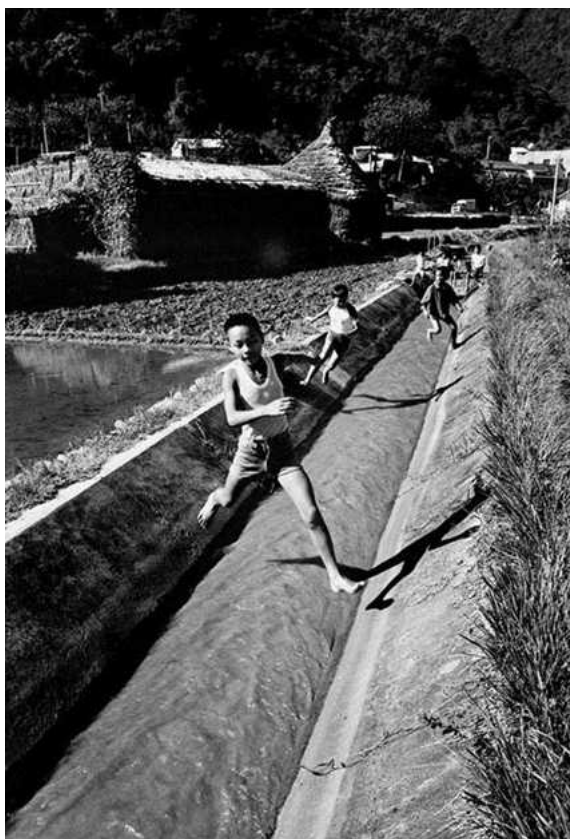
해해룡은 중국의 저명한 사진작가로 “대중촬영”잡지사의 편집위원이었다. 사진작가로서 그가 보여준 용기, 양심, 근성은 사람들을 감동시킨다. 학교를 그만 둔 어린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인도주의 가치를 척도로 현실을 반영하는 많은 사진 작품들을 창작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중국의 “희망공정”에 큰 영향을 미친 “큰 눈망울”이다. 학교교육문제를 다룬 작품집 “학교에 갈래요”는 대중들에게 사진작가의 힘과 감화력을 보여준 훌륭한 작품들을 수록하였다.



<그림 11> 초전(肖全) “우리 세대 - 역지난” 2000

“역지난은 피아노실의 피아노옆에 걸터앉아 있는데 손에는 담뱃재털이가 들려있다. 갓 화장을 끝낸 그녀는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벽에는 진일비화백의 복제품이 걸려있다. 그녀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그녀는 드라마출연료로 베이징무용대학에 다니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 갑자기 눈물이 주룩룩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린다. - 초전의 촬영후기에서

초전의 “중국에서 가장 우수한 인물촬영대가”로 불리고 있다. “우리 세대”라는 사진작품으로 촬영계에서 지위를 굳힌 그는 이 사진작품집을 촬영하기 위하여 10년을 중국 전역을 누비고 다녔다. 초전의 이 작품은 중국의 시대상을 깊이 있게 반영하고 있으며 자신의 온화하면서도 고집스런 성격으로 한 세대 중국인의 생존환경을 렌즈에 담아 그들의 고통과 쾌락, 방황과 집념을 그려내고 있다. 초전의 대표작으로는 “천당의 새”(삼모촬영전집) “우리 세대” 대형사진작품집이 있다.



<그림 12> 원의충(阮義忠) "사람과 땅" 1975

원의충은 중국 대만의 사진작가로 수십년간 촬영에 매진하면서 인도주의적 온화한 시각으로 자신의 열정과 통찰력으로 대만의 사회현상을 렌즈에 담아내고 있다. 원의충의 대표작으로는 “사람과 땅” “당대 촬영대가” “촬영미학의 7가지 문제” 등이 있다. 원의충은 극성적인 인도주의자이며 고집스러움이 가득 담긴 사진기사로 자신의 작품마저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정리하고 편집하는바, 이런 점은 참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점이다.



<그림 13> 왕문란(王文瀾) “자전거를 타던 나날들” 1992

왕문란은 중국의 저명한 사진작가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베이징의 맛과 멋” “명인에 대한 투시” “움직이는 장성” “자전거를 타던 나날들” 등이 있다. 그의 작품은 일반인의 생활의 순간 순간을 포착하여 렌즈에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왕문란은 30여년의 촬영생애에 시대적 낙인이 찍힌 하나 하나의 작품들을 창작했는데 시대와 촬영이념의 변화에 따라 렌즈에 보다 많은 시대상을 담고 있다. 그는 사진작가일뿐만 아니라 사진작품창작활동 조직자이기도 하다.



<그림 14> 당사증(唐師曾) “모신우의 대학생시절” 1988

당사증은 중국의 저명한 종군 사진작가로서 홍수, 화재, 지진, 전쟁 등 위험한 상황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만 여장의 귀중한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애국주의와 인도주의적 인문정신에 기반하여 당사증은 독특한 시각으로 극한의 상황에서의 삶에 대한 태도를 사진작품과 문학작품으로 창작하고 있다. 당사증의 작품들은 전쟁과 평화, 무지몽매와 진보, 인간의 삶의 의미와 같은 인류생존의 굵직한 주제에 대한 사색을 불러일으킨다. (사진속의 남학생 - 모신우는 모택동의 친손자다)



< 그림 15> 여후민(呂厚民) “여산에 계신 모택동” 1972

여후민은 중국의 심장부 - 중남해의 전문촬영가로서 모택동의 신변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촬영가다. 14년간 중남해에 근무하는 동안에 모택동, 주은래 등 중국의 최고지도자들의 중요한 순간들을 사진작품으로 남겼다. 촬영에 대하여 여후민은 기술적인 것과 지식적인 것의 통일을 강조하고 있다. “촬영은 순간의 예술로서 장시간의 예술적 소양이 필요하다. 진실된 오늘을 촬영하는 것은 내일의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이다.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질 역사적 순간을 포착하자면 눈썰미가 좋아야 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자질도 갖추어야 한다. 눈썰미란 곧 작가의 지식소양이고 기술적인 자질이란 곧 사진장비를 숙련되게 다루는 능력이다. 기술과 지식의 통일된 소양이 있어야만 역사적인 순간을 정확하게 포착하게 할 수 있다. 내가 렌즈를 통하여 모주석을 관찰하면서 위인의 정신과 풍모에 감동하곤 했는데 이런 감동은 나의 일생에 영향을 주었다. “고 여후민은 기술하고 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모주석과 주총리” “여산에 계신 모택동” “나의 렌즈속에서의 위인 - 주은

래” 등이 있다.

그 뒤에 쓰러진 그의 집은 참담한 피해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한다. 촬영의 목적에는 인류가 지나온 역사적 순간을 담는 것도 포함되며 대표적인 사물이나 인물을 통하여 특정의 시기에 발생한 사건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박아 넣으므로 사람들에게 생명의 귀중함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준다. 상기의 작품은 비록 참담한 현실에 대한 기록이지만 이런 고난의 역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여금 생활을 더욱 사랑하도록 호소한다. 이 작품에서 보다시피, 외국의 사진작가들도 자신의 작품에 사상성과 예술성을 훌륭히 녹여낸다. 사상성과 예술성은 우수한 사진작품의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다.

사진의 예술성은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촬영기법을 포함한 여러가지 요소들의 융합이기도 하다. 여러가지 요소의 융합되어 최종적으로 사진작품의 예술성이 되어 그 작품성이 인정을 받게 된다. 사진작품의 예술적인 처리과정에 구도, 빛의 사용, 주제, 배경 등의 관계를 세밀하게 연구하여야 하는바, 이는 사진작품의 예술적 표현력을 높이는 관건이다. 동시에 작품의 예술성은 보는 사람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작가가 자신의 작품은 보통의 사람들은 쉽게 해독하지 못할 것이라는 오만함은 결국 자신의 실패작에 대한 자아위안일 따름이다. 경전적인 사진작품이 오래도록 사람들의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 사랑을 받기 때문이지 어떤 권위자가 훌륭한 작품이라고 해서 경전적인 사진작품이 되는 것이 아니다. 사진작품의 내용은 작품이 내재한 사상성의 표출이며 작품의 형식은 예술성의 구체적인 표현방법이다. 작품의 사상성은 예술성에 의해 구현되고 예술성은 사상성의 존재기반이 된다. 작품을 놓고 보면 사상성과 예술성은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 작품성을 형성하여야 하며 사상성과 예술성 그 어느 쪽으로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⁹⁾. 그렇지 않을 경우, 공감과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정도가 현격히 떨어지게 된다. 작가는 작품활동 시, 주관적으로 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완벽히 결부하는 동시에 사회적인 심미요구에 부합하도록 하여 사회적인 공감대를 가지는 가치 있는 작품을 창작함으로써 사람들의 깊은 사색을 유발하여야 한다.

9) 遊祥國. (2000). 『論攝影的藝術語言和藝術風格』. 重慶師專學報. p51-52

III. 사진작품의 필수 요소에 대한 분석—본인의 작품을 사례로

3.1 경전적인 사진작품의 필수 요소

촬영의 본질은 대중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진작품은 반드시 주류적 가치관에 부합하여야 한다. 필자는 경전적인 사진작품에 대한 감상과 분석과정에 경전적인 사진작품이 구비한 5가지 요소를 발견하였다. 첫째, 관중에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주체를 선택한다. 둘째, 사진의 색조와 선이 미적 감각을 가지도록 빛을 활용한다. 셋째, 화면의 합리적인 레이아웃으로 시각적인 충격을 구사한다. 넷째, 화면의 핵은 순간적인 포착에 있다. 다섯째, 충분한 설득력으로 관중의 공감과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늙은 광부”시리즈 작품을 창작하면서 중국의 경제개발단계의 광부들이 늙은 모습을 담아내고 싶었다. 중국의 광부수는 적지 않다. 그들은 가장 힘든 일을 하면서도 사회적 복지는 가장 적게 받는 사회의 한 계층을 대표한다. 광부들이 황혼에 접어들어 사람들의 눈에서 사라지는 현실이 안타깝다. 필자는 사진작가로서 광부 포함 최하층 노동자들에 대한 경의를 표시하고 싶었고 그래서 금번 작품을 완성하였다. 필자는 성취감을 가지고 작업했고 작품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다. 물론 사회적인 평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필자는 창작과정에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고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담았으므로 그 결과물도 좋은 평판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금번의 작품이 보다 많은 사람들의 노동자에 대한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고 막 들떠 있는 중화민족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데 한몫 했으면 좋겠다.

사진1은 필자가 창작한 작품 시리즈 “늙은 광부”중의 한 장인데 “늙은 광부”시리즈를 촬영한 배경은 하기와 같다. 사진속의 광부는 탄광에서 30여년을 근무한 늙은 광부로 이미 은퇴하였다. 시간은 노인의 몸에 많은 흔적을 남겼는데 그런 흔적들에서 쉽사리 노인의 작업환경을 연상할 수 있었다. 여기서 영감을 얻은 필자는 세심한 준비 끝에 이 작품을 창작하였다. 먼저 노인의 전

신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세부적인 부분들을 촬영하였는데, 연관된 신체부위들을 여러 장의 사진에 담아 평생을 광부로 살아온 노인의 신체를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노인의 근무환경과 캐릭터의 특성에 근거하여 필자는 회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며 작은 체구와 힘든 체력노동을 대조시켜 사람들에게 시각적인 충격을 주려고 하였다. 경전적인 사진작품과 문헌자료를 연구하는 과정에 필자는 우수한 사진작품은 꾸며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창작된 것이며 촬영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감성을 표현하여야 한다는 이치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야만 촬영 과정에 작가의 영감이 작품으로 표출될 수 있고 작품이 건전한 사상을 내재하게 되고 된다. 모델로 선발한 늙은 광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광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촬영작업시의 필자의 감정을 최적화할 수 있었다. 촬영작업을 마친 후, 필자는 아날로그적인 콜로디온 습판법으로 시각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사진1은 노인의 허리부분을 촬영한 것이다. 물론 인체를 촬영함에 위로부터 아래로 촬영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필자는 허리부분을 작품 “늙은 광부”의 1번 사진으로 배열하였는바, 관중이 1번 사진을 보고 본 작품의 주제와 풍격을 상상할 여지를 두고 싶었다.



<그림 16> 본인작품 “늙은 광부” 45×32 2015

사진에서 노인의 피골이 상접한 허리부분을 충분히 표현하고 힘없이 축 처진 거친 피부를 생생하게 재현하려고 했다. 전체 작품촬영에서 거친 피부에 대한 묘사는 필자가 초점을 맞춘 부분이기도 하다. 촬영과정에 필자는 감화력이 있는 화면을 연출하려고 했지만 결국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감화력이 있고 가장 진실되고 가장 감동적이었다.



<그림17> 본인작품 “늙은 광부” 45*32 2015

사진2는 노인의 얼굴사진이다. 초점을 노인의 얼굴의 주름살에 돌렸는데, 주름살은 세월이 인간에 남겨주는 가장 직관적인 흔적으로 늙어 간 세월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세부이기도 하다. 사진1에서 관중에 상상공간을 남겨 두었다면 사진2에서 필자는 표현하려는 주제를 직관적으로 표현하려고 했으며 세월이 노인에게 남긴 흔적을 더욱 돌출시키기 위하여 눈을 감은 모습을 연출했다. 물론 주름살은 광부라는 직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지만 주름살에서 노인이 한평생 광부로 살아오면서 겪은 풍상고초를 연상시키기에는 충분하였다.



<그림 18> 본인작품 "늙은 광부" 45*32 2015

사진3에서 필자는 노인의 상반신을 촬영하였다. 상반신을 선택한 이유는 공간의 레이아웃과 구도의 수요에 따른 것이다. 신비스러운 블랙배경에 노인의 신체를 돌출시킴으로써 만족할만한 사진을 얻었다. 팔에 울퉁 불퉁 튀어난 핏줄로 노인의 지나온 나날들을 표현하려고 했고 왼손으로 오른팔을 잡은 화면으로 노인에게 얼마 남지 않은 세월을 잡아두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다. 촬영 과정은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이면서 모델로 선발된 노인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노인은 그냥 평범한 광부였고 한평생 힘든 체력노동에 종사했을 뿐이다. 왜소한 신체와 힘든 광부의 노동은 커다란 대조를 이루면서 작품의 감화력을 높일 수 있었다.



<그림 19> 본인작품 “늙은 광부” 45* 32 2015

사진4는 노인의 왼쪽 가슴을 촬영한 것이다. 전체 화면은 비교적 어두운 빛을 사용하였지만 표현하려는 내용은 비교적 뚜렷하다. 세월이 노인에게 남겨준 풍상고초를 사진 한 장에 담아냈다. 노인은 한평생 블랙배경에서 광부로 살아왔으므로 직관적인 블랙칼라와 어두운 피부색, 축 처진 살결, 거친 화면으로 노인의 생활경력을 표현함으로써 생활이 노인을 짓누른 흔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그림 20> 본인작품 “늙은 광부” 45* 32 2015

사진5는 노인의 무릎과 허벅지를 촬영한 것인데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촬영 시 필자는 큰 충격에 휩싸였었다. 피부의 거친 정도가 상상을 초월하였으며 무정한 세월을 한탄하게 하였다. 생활의 무게를 고스란히 떠 받친 노인의 두 다리는 보는 사람에 큰 시각적 충격을 준다. 중국은 석탄매장량이 풍부하여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 필자의 작품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광부에 관심을 돌리고 탄광노동자들의 고초를 헤아려 주기를 희망한다. 탄광노동은 광부들의 체력만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광부들의 신체까지 망가뜨리고 있으며 광부들은 이렇게 망가진 몸으로 한평생을 견뎌야 한다.



<그림 21> 본인작품 “늙은 광부” 45* 32 2015

사진6은 노인의 복부를 촬영한 것이다. 두 손으로 축 처진 피부를 잡아 왜소하고 노화된 체구의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 한평생 검은 석탄과 접촉한 노인의 블랙칼라의 손은 현상작업의 걱정된 처리를 거쳐 더욱 뚜렷하게 광부의 손을 대표한다. 복부는 인체에서 피부가 가장 여린 부분이다. 물론 노인의 복부도 여타의 부위에 대비하면 여린 편이지만 그런 복부마저도 주름이 지고 거칠어 충격적이다. 두 손으로 복부를 움켜쥐게 한 것은 손과 복부를 대조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고 사진의 입체감을 더하기 위해서였다. 촬영 작업은 비교적 순조로웠지만 작업과정에 받은 충격은 오래도록 필자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 시리즈 작품을 진행하면서 필자는 사진작가의 직업윤리에 대하여 깊이 사색하게 되었다. 사진작가는 마땅히 사회의 각 분야와 구석 구석을 자세히 관찰해야 하며 취약계층을 눈길을 돌려 그들의 삶의 애환을 렌즈에 담아내어 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내야 한다.

3.1.2 본인의 작품의 내재적 요소에 대한 분석

“늙은 광부”시리즈 작품을 창작한 목적은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노인에게 남긴 흔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동시에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 것이다.



<그림 22> 본인작품 “늙은 광부” 45* 32 2015

사진8은 노인의 등골을 촬영한 것이다. 비록 세월이 노인에게 거친 피부를 남겨주었지만 노인의 등골은 꼳꼳하였다.



<그림 23> 본인작품 “늙은 광부” 45* 32 2015



<그림 24> 본인작품 “늙은 광부” 45* 32 2015



<그림25> 본인작품 “늙은 광부” 45* 32 2015

사진10은 노인의 발목과 발을 촬영한 것이다. 노인의 손과 같이 세월이 남긴 흔적이 선명한 노인의 두발은 한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노인의 몸을 지탱하여 세월과 맞서게 한다. 광부로서의 한 평생은 평범한 생이면서 한 가족의 삶을 짊어 지고 온 비범한 삶이다.

II. 결 론

논문은 중국 목전의 품위 낮은 사진작품이 배출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기존의 경전적인 작품들에 결부하여 촬영에서 사상성과 예술적 표현력의 중요성에 대하여 분석하면서 필자 본인의 작품을 사례로 종합적으로 논술했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촬영도 점차 복잡한 작업과정이 되어 간다. 그러나 세계를 기록하고 세계를 인식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촬영은 반드시 충분한 사상적 가치를 지녀야 하며 작품으로 그것을 표현하여 대중을 감화시키고 공감시키고 감동시킴으로써 사회와 시대에 대한 대중들의 사색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사진작가는 반드시 일정한 창작이념을 수립하여 자신의 관찰능력에 결부하여 순간을 정확히 포착하여 예술적 표현해야 하며 작품에 자신의 사상과 감성을 녹여내야 한다. 중국의 촬영역사는 백 년이 넘었고 그 과정에 경전적인 작품과 우수한 작품들이 적지 않다. 때문에 우리는 외국의 선진적인 촬영기술과 이념을 배우면서 특히 중국의 촬영문화의 핵심가치를 전승하고 혁신하여 중국의 촬영사업을 발전시킴으로써 멀지 않은 장래에 촬영산업의 번영기를 맞이 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鄧天佑. (2012). 『布列松新聞攝影思想研究』. 湘潭大學.
- 呂 珍. (2013). 『論紀實攝影的主觀性與客觀性』. 山東工藝美術學院.
- 李 佳. (2013). 『中國當代紀實攝影語言多元化特徵與表現』. 河南大學.
- 李可穎. (2012). 『數字技術對當代攝影創作影響的研究』. 中南大學.
- 李龍海. (2014). 『觀念攝影的形成與發展』. 吉林大學.
- 李愛民. (2000). 『攝影的美學思想』. 新疆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 岸 泳. (1995). 『對攝影藝術表現性的思考』. 理論與創作. 05:72-73.
- 王柄凱. (2013). 『淺談攝影的藝術性』. 才智. 11:241.
- 張毓龍. (2014). 『攝影創作中的情感因素』. 青年記者. 02:54-55.
- 趙 燁. (2013). 『中國當代攝影觀念的湧動與表現』. 河南大學.
- 鐘林卡. (2010). 『中國攝影藝術的民族化進程』. 江西社會科學. 08:227-230.
- 馮笑男. (2013). 『攝影藝術創作中的情感表達』. 藝術研究. 01:98-99.
- 馮笑男. (2015). 『攝影藝術創作中的情感表現』. 赤子(上中旬). 05:71-72.
- 遊祥國. (2000). 『論攝影的藝術語言和藝術風格』. 重慶師專學報. 01:51-52.
- 何 薇. (2009). 『皮佳.淺談中國藝術攝影的發展趨勢』. 才智. 05:166-167
- 黃 俊. (2013). 『文化內涵是攝影藝術的靈魂』. 神州. 27:212.

ABSTRACT

Study on artistic expression about chinese photograph

Zhou Jie

Photograph

Dept. of Painting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computer technology, the value of photography and the aesthetic concept has changed, and the related photographic works have appeared in many forms, and this trend has not slowed down. There are many reasons for this situation, but the most important one is that the traditional photography culture has not been able to pass, while the lack of innovation consciousness, which makes the quality of the final photographic works in a very long time to stop. In this thesis, the author analyzes the ideological and artistic expression of Chinese photography works, and discusses the important significance of the author's personal work. This paper is divided into five parts. First, the introduction, the research purpose, methods and the current research status, and points out the innovation of this paper. Second, the author makes a thorough analysis of the present situation of Chinese photography history, and points out the present situation of our country 's present photographic work. Fourth, it reflects the importance of this study. Fifth, the author analyzes the essential elements of

photography. It is hoped that the research of this thesis will play a positive role in the values, aesthetic appreciation and artistic conception of the photographer.

【Key words】 Photography work, artistic expression, values